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February 2025 Issue | Vol. 13

SPECIAL POINTS OF INTEREST

- 2025년 필리핀의 강한 경제 성장, 4대 핵심 부문에 달려있다 — PIDS — page 1-2
- 필리핀, 글로벌 협력 강화해야 — NEDA — page 2-3
- 트럼프의 관세가 한국의 '철강 도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 — page 3-4
- 무역 전쟁, 정책 추진에 장애 될 수도 — page 4-6
- PEZA,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로 필리핀 수출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 — page 6-7
- 필리핀, 석탄 화력 발전소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IEA 발표 — page 7

2025년 필리핀의 강한 경제 성장, 4대 핵심 부문에 달려있다 — PIDS

February 17, 2025 | Angela Celis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개발연구원(PIDS)은 올해 필리핀 경제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등 4대 핵심 부문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PIDS는 투자자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필리핀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이러한 부문을 강조했다.

PIDS의 선임 연구원인 존 파올로 리베라는 2월 13일 웨비나 발표에서 이러한 핵심 부문에 대한 세부 내용과 설명을 공유했다. PIDS는 해당 발표 자료를 주말 동안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의 도입은 계속될 것이며, AI 활용이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소매,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성과 혁신이 향상될 것입니다."라고 리베라 선임 연구원이 말했다.



Infrastructure is one of the key sectors that could support the country's economic performance in 2025, according to the 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One of the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is the Metro Manila Subway shown here during a technical tour conducted by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n Dec. 12, 2024. DOTR

"핀테크(FinTech, 금융 기술)의 성장과 더불어 필리핀인들이 디지털 결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은 특히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리베라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बैं킹, 블록체인 응용 기술, 다양한 온라인 대출 플랫폼 등에서 투자 기회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리베라는 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의 "Build, Better, More"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교량, 공항, 철도 등 인프라 투자가 우선순위로 추진될 것이며, 공공-민간 협력(PPP) 프로젝트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주요 프로젝트로는 메트로 마닐라 지하철 확장, 민다나오 철도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민다나오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이 아시아의 관광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주요 공항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리베라는 밝혔다.

"이러한 프로젝트로 인해 건설, 엔지니어링, 부동산 부문에서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리베라는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과 글로벌 지속 가능성 공약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산업에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많은 기업과 개발업체들이 친환경 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적 설계, 지속 가능성 인증 등을 필리핀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리베라는 말했다.

소비 지출 측면에서, 리베라는 필리핀의 중산층 확대와 젊은 인구 증가가 소비재, 부동산,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유통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필리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리베라는 국제 관광객들의 복귀가 예상되며, 여행 제한 완화, 항공편 연결 확대, 대체 입국 경로 개설 등을 통해 필리핀의 인바운드 관광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ont. page 2]

2025년 필리핀의 강한 경제 성장, 4대 핵심 부문에 달려있다 — PIDS

[Cont. from page 1]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관광 수입의 최소 80%가 국내 관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인들의 지속적인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이 관광 및 환대(hospitality)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라고 리베라는 말했다.

"이에 따라 호텔 투자, 생태 관광(ecotourism), 여행 서비스에 특화된 디지털 플랫폼 등에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농업 비즈니스 현대화와 관련하여, 리베라는 농업 분야에서 기술 통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농업과 드론 기술과 같은 농업 기술(Agri-tech) 혁신이 도입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콜드 스토리지(저온 저장 시설), 공급망 물류, 고부가가치 작물 분야에서도 투자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자금 지원 확대가 병원 및 제약 산업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리베라는 밝혔다.

또한, 필리핀이 특히 미용 및 웰니스 치료 분야에서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strong-ph-2025-economic-growth-hinges-on-4-key-sectors-pids/](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strong-ph-2025-economic-growth-hinges-on-4-key-sectors-pids/)

필리핀, 글로벌 협력 강화해야 — NEDA

February 16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The Philippines should invest in its human capital to leverage new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STAR / File

경제적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 경제적 회복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밝혔다.

이 점은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NEDA 장관이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관유공공정책대학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강조했다.

발리사칸 장관은 불평등 증가, 보호주의 강화, 파괴적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정책의 증가, 기후 변화 악화에 따른 비용이 큰 에너지 전환 등 메가트렌드가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들의 개발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시아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은 개발 전략을 형성하고 제약하는 다양한 메가트렌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개발 전략을 촉진하고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으며, 즉각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반응적 조치와 신흥 기회를 예상하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그는 필리핀이 경제적 모멘텀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 다각화와 소비 및 서비스 부문을 넘어서는 필요성,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을 촉진하며 중요한 부문에서 시장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혁을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정부가 생산성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 도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려면 필리핀은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다행히도 필리핀은 디지털 연결 시대에 특히 기술과 역량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밀집된 이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된 인재의 귀환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위한 충분한 자금 지원과 학계-산업 간의 강력한 연결 고리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Cont. page 3]

필리핀, 글로벌 협력 강화해야 — NEDA

[Cont. from page 2]

무역 전쟁과 기후 위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그는 무역, 투자 및 개발 협력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중견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했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은 필리핀이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빈곤 감소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중요하다.

"특히 경제 강대국 간의 경쟁에 휘말린 작은 개방 경제들 간의 지역 및 국제적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라고 발리사칸은 말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2/16/2421785/philippines-must-strengthen-global-ties-neda>

트럼프의 관세가 한국의 '철강 도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

February 16 2025 | Agence France-Presse

포항, 한국 — 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한국의 철강 중심지에서 대형 수출품에 대한 워싱턴의 새로운 관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동해안에 위치한 포항시는 수십 년 동안 국가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끈 철강을 생산해왔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네 번째로 큰 국가였으며, 전체 철강 수입의 13%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경쟁으로 산업은 심각한 압박을 받아왔다.

이제 포항의 기업, 관계자, 근로자들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국 철강 수입에 대한 25%의 관세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경제에 중대한 연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 산업의 기초 원자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국가 산업입니다," 포항 시장 이강덕은 AFP에 말했다.

"만약 철강 산업이 붕괴된다면, 한국 경제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이 시장은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 도시'

서울에서 약 270킬로미터 동남쪽에 위치한 포항은 심화되는 지역 불균형 속에서 자원이 대부분 수도에 집중된 한국에서 드물게 중요한 산업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포항은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인 POSCO의 본고장이며, 현대제철, 동국제강과 함께 한국의 산업화와 수출 강국으로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포항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탱해 온 상징적인 철강 도시로, 한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대제철 전직 직원이자 한국고속노동조합 포항지부의 공식인 방성준은 말했다.

"철강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는 AFP에 전했지만, 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근로자들의 위험한 작업 환경도 인정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위기에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포항이 철강 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나아가 도시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중대한' 영향

한국의 철강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공급 과잉, 특히 중국산 철강의 유입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큰 압박을 받아왔다.

미국의 관세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분석가들은 미국 시장에서 차단된 저가 중국산 철강이 동남아시아나 유럽과 같은 지역에 밀려 들어가면, 한국 철강 생산자들이 가격 경쟁 심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Cont. page 4]



U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speaks at a MAGA victory rally at Capital One Arena in Washington, DC on January 19, 2025, one day ahead of his inauguration ceremony. Jim Watson, AFP

트럼프의 관세가 한국의 '철강 도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

[Cont. from page 3]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중국의 저가 수출과 불리한 일본 엔화 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철강 산업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로 대학교 한국학과 블라디미르 티호노프 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가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을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제철소가 문을 닫은 포항에서는 일자리 보장과 추가 해고의 위험이 이러한 잠재적 이익보다 더 큰 우려로 자리 잡고 있다.

AFP 기자들은 지난해 말 문을 닫은 현대제철의 한 공장을 방문했다. 당시 공장은 운영되지 않는 듯 보였으며, 소수의 직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취재진은 노조원들이 내건 현수막에서 경영진을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열린 문 틈으로는 내부에 잔해가 쌓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기회 없는 위기만 계속될 뿐입니다."

노조원 방 씨는 이렇게 말했다.

포스코의 하청업체에서 20년간 일해 온 노동자 이우만 씨는 AFP에 지난 1년 동안 동료 2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4년 동안 포항의 고용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도시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거대한 제철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포스코가 포항을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그 광경은 그에게 불안함을 안겨준다.

"이 모든 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 Agence France-Presse

Source: <https://www.abs-cbn.com/news/business/2025/2/16/patrol-ng-pilipino-paano-iwasang-ma-fall-sa-mga-online-love-scam-1907>

무역 전쟁, 정책 추진에 장애 될 수도

February 17, 2025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A drone view shows shipping containers from China at the Port of Los Angeles in Wilmington, California, Feb. 4, 2025. — REUTERS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완화 사이클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글로벌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한 2차 효과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BSP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에서 완화 모드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아직 완전히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글로벌소스 파트너스(GlobalSource Partners) 국가 애널리스트이자 BSP 부총재를 지낸 디와 C. 기니군도(Diwa C. Guinigundo)는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BSP는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방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목요일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기준 환매조건부금리(RRP)를 5.75%로 유지했다.

이는 BSP가 지난해 8월 완화 정책을 시작한 이후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 2024년 말까지 총 75bp(베이스스 포인트)를 인하했다.

BSP 엘리 M. 레몰로나 주지사는 금리 동결 결정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더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Cont. page 5]

무역 전쟁, 정책 추진에 장애 될 수도

[Cont. from page 4]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기니군도 전 BSP 부총재는 이러한 관세 조정이 단기적으로 물가 수준과 국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 불확실성은 위험 프리미엄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 및 무역 불확실성의 직접적인 영향과 유가 상승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임금, 교통 요금, 국내 물가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2차 효과가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보고서를 통해 상응하는 관세의 간접적인 영향이 보편적인 관세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응하는 관세는 높은 관세 장벽을 가진 신흥 시장에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의 장점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시 더 안정적인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며,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ANZ 리서치는 상응하는 관세가 도입될 경우 신흥 아시아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의 무역 갈등은 미국 정부가 아시아 경제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훨씬 더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당시 아시아 경제는 주로 2차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며, 중국은 필리핀의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시티은행(Citi) 필리핀 담당 이코노미스트 날린 촛초티탐(Nalin Chutchotitham)은 이러한 무역 정책이 필리핀 폐소화에도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과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폐소화 절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식품 및 에너지 수입을 통한 인플레이션 상승뿐만 아니라 해외 노동자의 송금 환전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점진적 완화

지난주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BSP가 신중하고 점진적인 속도로 금리 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결정은 BSP가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완화 사이클의 속도를 늦추려 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주지사가 언급한 '점진적(measured)' 완화의 의미를 고려할 때, 금리 동결의 강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노무라 글로벌 마켓 리서치(Nomura Global Markets Research)의 애널리스트 유벤 파라쿠엘레스(Euben Paracuelles)와 나빌라 아마니(Nabila Amani)는 이렇게 분석했다.

필리핀은행(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BPI)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밀리오 S. 네리 주니어(Emilio S. Neri, Jr.)는 올해 통화정책 완화의 여지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차 축소는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필리핀 경제는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려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 금리가 연말까지 5.25%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니군도 전 BSP 부총재는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망했다.

"향후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입니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있어 긴축 정책이 성장에 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큼니다."

한편, 노무라는 BSP 금융정책위원회(Monetary Board)가 총 75bp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는 이번 정책 사이클에서 추가적으로 75bp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기준 환매조건부금리(RRP)는 5%까지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는 BSP가 여전히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 긴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Cont. page 6]

무역 전쟁, 정책 추진에 장애 될 수도

[Cont. from page 5]

노무라와 시티는 BSP 금융정책위원회(Monetary Board)가 올해 4월, 8월, 12월에 각각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BSP가 높은 실질 정책 금리와 연준(Fed)과의 긍정적인 금리 차이를 고려할 때 올해 총 75bp의 금리 인하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레물로나 주지사의 더 신중한 금리 인하 가이드는 올해 총 50bp 인하를 의미하며, 세 번째 금리 인하는 국내 수요와 인플레이션 외에도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쏫초티탐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네리 이코노미스트는 BSP가 6월에 금리 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추가적인 정책 완화는 여전히 가능하며, 국내 인플레이션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5월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여전히 실망스러우면 BSP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준의 정책 가이드와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물로나 주지사는 BSP가 여전히 금리 완화 사이클에 있으며, 올해 최대 50bp의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4월 RRR 인하

한편, 노무라는 BSP가 4월에 준비금 지급준비율(RRR)을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는 4월이 실현 가능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5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동성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즉, 금리 인하 전 RRR 인하)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BSP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하가 RRR을 단일 자릿수로 낮추려는 장기 목표와 일치하며, 또한 금리 인하의 전달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물로나 주지사는 RRR 인하가 올해 여전히 논의 중이며, 4월 3일 예정된 다음 금융정책위원회의 정책 검토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bp의 인하를 시사했으며, 이는 대형 은행들의 RRR을 현재 7%에서 5%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책 금리에 비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라고 쏫초티탐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2/17/653517/trade-war-may-hamper-policy-path/](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2/17/653517/trade-war-may-hamper-policy-path/)

PEZA,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로 필리핀 수출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

February 16, 2025 | Othel V. Campos | Manila Standard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의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현지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높은 세금으로 수출 제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는 제조업체와 공급망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고 PEZA의 테레소 팡가 사무총장이 2025년 2월 14일 산업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팡가 사무총장은 2023년 중국이 약 4,36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그 시장의 10%인 약 436억 달러를 차지한다면, 미국으로의 필리핀 경제구역 수출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가 전자 산업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농업, 화학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이러한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응하고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팡가 사무총장은 트럼프 정책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와 다르며, 특히 CHIPS법과 산업기술 및 반도체 이니셔티브(ITSI) 기금의 시행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활동 중인 일부 미국 기업들은 이미 ITSI 기금을 확보했으며, 팡가 사무총장은 이를 통해 필리핀의 전자 제조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nt. page 7]



PEZA,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로 필리핀 수출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

[Cont. from page 6]

"이것은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EMS(전자 제조 서비스) 공급망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에너지 개발 및 기타 주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필리핀에서 중요한 백엔드 운영을 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부문별 또는 보편적인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가 사무총장은 필리핀의 주요 전략을 제시했으며, 그 중에는 새로운 외국인 직접 투자(FDI) 출처를 찾고, 지역 무역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하며, ASEAN 내 무역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는 또한 수입 대체의 가능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만 소싱하는 대신 현지 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완전히 분리되기보다는 그들로부터 배우고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평가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558500/peza-sees-ph-exporters-benefiting-from-us-tariffs-on-china-products.html>

필리핀, 석탄 화력 발전소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IEA 발표

February 18, 2025 | Brix Lelis | The Philippine Star



The IEA said in its latest electricity report that coal accounted for around 62 percent of the country's power generation mix in 2024.

STAR / File

마닐라, 필리핀 — 정부의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금지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여전히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국제 에너지 기구(IEA)가 전했습니다.

IEA는 최신 전력 보고서에서 석탄이 2024년 필리핀 전력 생산 믹스의 약 62%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EA는 석탄의 비중이 2027년까지 "미미하게 감소"하여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석탄 발전의 성장은 2025-2027년 동안 4%로 완화되며, 이는 2018-2024년의 7%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라고 IEA는 말했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기저 부하 전력의 주요 공급원으로 사용됩니다.

2020년, 에너지부(DOE)는 석탄 모라토리엄을 시행하여 신규 석탄 발전소 신청의 처리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DOE는 이 정책이 "전면적인 금지"는 아니며, 기존의 운영 중인 석탄 발전소나 이미 약속된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IEA는 석탄 정책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IEA는 지난해 필리핀의 전력 수요가 5% 증가했으며,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수요 증가는 GDP(국내총생산) 성장 전망과 대체로 일치하며, 경제 활동이 전력 소비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IEA는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스 화력 발전은 2025년에서 2027년까지 현재의 14%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재생 가능 에너지는 지난해 22%에서 2027년까지 24%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향후 3년 동안 추가적인 전력 수요 증가의 3분의 1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IEA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2/18/2422190/philippines-remains-heavily-dependent-coal-power-plants-says-iea>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